

食品消費構造變化와 輸入依存度分析

朱 龍 宰*

- I. 序言
- II. 食品消費構造의 變化(1968~77)
- III. 都市 및 農村家計의 消費支出動向
- IV. 食品의 輸入依存度
- V. 結言

I. 序 言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國民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食品消費패턴이 高級化 대지 多樣화되고 있으며 특히 高級食品인 畜產物과 經濟作物의 需要가 최근에 急增하고 있다. 한편 급속한 工業化와 都市화의 過程에서 良質의 農地가 罷食당하고 農業勞動力이 非農業部門으로 大量 流出되는 등 農業生產與件이 相對的으로 不利하여지고 있으며, 이에 追加하여 輸出主導型의 經濟成長過程에서 農產物의 輸入壓力이 加重되고 있다. 이러한 農業의 諸與件의 變化에 對處하여 急增하는 食糧需要의 効率의in 供給方案을 摸索함은 農政의 重要한 當面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食品消費構造는 西歐化될 것이다, 지나친 西歐化는 우리나라와 같이 農業資源이 不足한 나라에 있어서는 食品의 海外依存度를 상당히 높일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資源條件下에서 國民營養을 改善하고 食糧의 自給度를 提高시키기 위하여 農業生產을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는 앞으로 主要한 研究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上記 研究의 一環으로서 本分析에서는 過去 10餘年間(1968~77)의 食品消費패턴의 變化를 食品의 物量面, 營養供給面 및 家計費支出面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都農間 및 所得階層間을 比較分析하였으며, 國民營養이 어느 정도 海外에 依存하는가를 热量(칼로리)面에서 分析하였다. 이러한 資料의 세심한 分析은 앞으로 食品消費패턴의 展望과 食糧政策樹立의 參考資料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中間分析結果를 收錄하고자 한다.

II. 食品消費構造의 變化 (1968~77)

過去 1968~77年間의 우리나라 食品消費 패턴의 變化를 살펴보면 穀物의 1人當年間 供給量은 1968年の 205.5kg에서 점차 增加하여 1971年에는 제일 높은 221.4kg을 記錄하였고, 그 후에는 약간 減少趨勢에 있으며 1977年에는 209.8kg이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食糧經濟研究室, 農業經濟學博士(루이지アナ大)

表 1 食品群別 1人當 年間消費量推移

單位 : kg

年度	食品群別	穀類	畜產物 ¹⁾	水產物 ²⁾	菜蔬類	果實類
1968 ^(A)	205.5	11.5	16.5	53.4	8.9	
69	212.5	14.5	15.0	58.9	9.9	
70	213.4	13.3	17.3	59.9	10.0	
71	221.4	13.3	17.5	67.5	9.9	
72	219.3	15.2	21.3	62.3	11.3	
73	215.5	15.9	28.7	58.8	12.5	
74	210.1	16.8	27.8	65.2	13.0	
75	207.3	17.7	29.9	62.5	14.0	
76	209.0	19.2	29.8	68.2	13.1	
77 ^(B)	209.8	22.0	29.5	62.5	15.3	
B/A (%)	102.1	191.3	178.8	117.1	171.9	

1) 肉類 및 乳製類 包含.

2) 魚貝類 및 海藻類 包含.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단), 穀類는 農水產部食糧局 資料임).

었다. 畜產物의 1人當 年間供給量은 계속 增加趨勢에 있으며 1968年の 11.5kg에서 1977年の 22.0kg으로 約 1.9倍 增加하였고, 水產物은 年度間に 다소 起伏은 있으나 16.5kg에서 29.5kg으로 약 1.8倍 增加하였다. 同期間에 있어 果實의 1人當 供給量은 8.9kg에서 15.3kg으로 약 1.7倍, 菜蔬의 그것은 53.4kg에서 62.5kg으로 약 1.2倍로 각각 增加하였다(表 1).

한편 營養供給面에서 살펴보면 1人1日當 热量攝取量은 1968年の 2,276kcal에서 1977年에는 2,427kcal로 약 6.6% 增加하였고, 摄取热量中 動物性食品이 차지하는 比率은 4.9%에서 9.6%로 약 2倍 增加하였다. 1968~77年間에 1人當 實質國民所得은 113.4% 增加한데 반하여 热量攝取量은 不過 6.6% 增加하였으므로 所得 增加率에 비해 热量攝取量增加率은 대단히 미미하다. 한편 1人1日當 蛋白質攝取量은 1968年の 62.1g에서 1977年에는 73.9g으로 約 19% 增加하였으며, 蛋白質 摄取量中 動物性의 比重은 15.6%에서 27.3%로 늘었고, 1人1日當 脂肪質攝取量은 同期間中에 18.4g에서 29.2g으로 현저히 增

表 2 年度別 1人1日當 营養供給量 및 構成比

區分 年 度	熱量 (kcal)			蛋白質(g)		脂肪質 (g)	
	總量	植物性 ¹⁾	動物性	總量	植物性		
1968	2,276 (100.0) ²⁾	2,165 (95.1)	111 (4.9)	62.1 (100.0)	52.4 (84.4)	9.7 (15.6)	18.4
70	2,370 (100.0)	2,249 (94.9)	121 (5.1)	65.1 (100.0)	54.5 (83.7)	10.6 (16.3)	19.7
72	2,415 (100.0)	2,278 (94.3)	137 (5.7)	67.1 (100.0)	54.3 (80.9)	12.8 (19.1)	22.6
74	2,370 (100.0)	2,215 (93.5)	155 (6.5)	69.4 (100.0)	55.3 (79.7)	14.1 (20.3)	24.0
76	2,414 (100.0)	2,220 (92.0)	194 (8.0)	73.5 (100.0)	56.4 (76.7)	17.1 (23.3)	27.9
77	2,427 (100.0)	2,194 (90.4)	233 (9.6)	73.9 (100.0)	53.7 (72.7)	20.2 (27.3)	29.2

1) 雪糖類, 其他 包含.

2) () 内의 數值는 構成比임.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加하였다(表 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9年 동안에 穀物消費量은 약간 增加한 반면, 畜產物과 經濟作物의 需要가 상당히 增加하여 热量이나 蛋白質의量의增加는 물론 質的인 面에서도 상당히 改善되어 왔으며, 앞으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이더한 趨勢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77年度 韓國人의 热量攝取量은 2,427kcal로서 이는 3,000kcal가 넘는 西歐先進國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水準이며, 1976年度 日本의 2,474kcal 보다도 60kcal 나 낮은 水準이다(表3). 1977年度 韓國의 總에너지 摄取量中 濃粉質食品에서 摄取한 热量의 比重은 77.2%로서 穀類의 消費量이 지극히 많았는데 반하여, 이른바 高級食品이라고 할 수 있는 動物性食品과 雪糖類 및 油脂類의 消費量은 상당히 낮은 水準임을 알 수 있다(表3). 1977年度 韓國人의 總蛋白質攝取量은 73.9g로서 先進國의 80~100g에 비하여 量的인 面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으나 動物性蛋白質의 1人1日當 摄取量이 不過 20.2g으로서 50g이 넘는 西歐先進國에 비하면 質的인 面에서 월등히 떨어지며, 1976年 日本의 36.3g의 55.6%에

表 3 主要國別 養營供給量 及 構成比(1人1日當)

資料：農水產部，「食品需給表」，1977。

해당된다.

食品群別로 热量攝取量을 살펴보면 1968~77
年間에 穀物에서 摄取한 热量은 62.2kcal나 줄은
반면, 畜產物은 49.1kcal, 水產物은 47.3kcal,
果菜類는 17.1kcal, 그리고 其他食品(堅果類, 種
實類, 雪糖類, 油脂類包含)은 98.9kcal 가 각각
增加하였다(表4). 同期間中에 穀物의 摄取热量
이 줄은 것은 쌀, 밀가루, 豆類에서 摄取한 热
量은 143.8kcal나 增加하였으나 劣等財인 보리,
薯類 및 其他穀物消費量의 급격한 減少로 이들
의 摄取热量이 206.2kcal나 줄었기 때문이다.

1977年度 1人1日當 热量供給量中 穀物이 차지하는 比重이 81.3%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壽產物의 比重은 4.5%, 水產物은 3.7%, 果實과 菜蔬는 3.2%, 그리고 雪糖類와 油脂類를 포함한 其他食品은 7.3%이었다. 한편 1977年度 蛋白質攝取量中 穀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66.2%로서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水產物로서 20.0%, 壽產物은 9.5%, 그리고 果

表 4 食品群別 1人 1日當 热量 型 蛋白質攝取量

區分	年度	穀 物	畜產物	水產物 ¹⁾	果菜類	其 他 ²⁾	計
熱量 (kcal)	1968	2,034.4 (89.4) ³⁾	59.8 (2.6)	43.1 (1.9)	60.4 (2.7)	78.7 (3.4)	2,276.4 (100.0)
	1972	2,095.5 (86.7)	69.7 (2.9)	59.8 (2.5)	74.6 (3.1)	115.4 (4.8)	2,415.0 (100.0)
	1976	2,012.2 (83.4)	82.9 (3.4)	84.4 (3.5)	79.1 (3.3)	155.0 (6.4)	2,413.6 (100.0)
	1977	1,972.2 (81.3)	108.9 (4.5)	90.4 (3.7)	77.5 (3.2)	177.6 (7.3)	2,426.6 (100.0)
蛋白質 (gr)	1968	49.6 (79.2)	3.6 (5.8)	6.8 (10.9)	2.5 (4.0)	0.1 (0.2)	62.6 (100.0)
	1972	50.5 (75.3)	4.6 (6.8)	9.0 (13.4)	3.0 (4.5)	—	67.1 (100.0)
	1976	51.1 (69.5)	5.8 (7.9)	12.7 (17.3)	3.3 (4.5)	0.6 (0.8)	73.5 (100.0)
	1977	48.9 (66.2)	7.0 (9.5)	14.8 (20.0)	3.0 (4.1)	0.2 (0.2)	73.9 (100.0)

1) 海藻類 包含:

2) 堅果類、種實類、雪糖類 及 油脂類 包含。

3) ()內 數值是 構成比。

資料：農水產部，「食品需給表」，1977。

菜類는 4.1%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穀物은 우리나라에 있어 아직도 热量이나 蛋白質의 供給面에서 아주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

1977年度 穀物로부터의 摄取熱量(1,972.2kcal)
中 쌀의 比重은 59.7%, 밀가루는 15.4%, 보리
는 13.1%, 薯類는 5.3% 그리고 豆類는 5.1%

表 5 穀種別 1人1日當 热量 및 蛋白質 摄取量

穀種別	熱量 (kcal)		蛋白質 (g)			
	1968 (A)	1977 (B)	B-A	1968 (A)	1977 (B)	B-A
쌀	1,097.1 (53.9)	1,177.3 (59.7)	80.2	21.0 (42.3)	22.5 (46.0)	1.5
보리	388.7 (19.1)	259.0 (13.1)	△129.7	12.0 (24.2)	8.0 (16.4)	△ 4.0
밀가루	269.2 (13.2)	303.8 (15.4)	34.6	6.5 (13.1)	7.4 (15.1)	0.9
薯類	170.9 (8.4)	104.3 (5.3)	△ 66.6	2.2 (4.4)	1.4 (2.9)	△ 0.8
豆類	70.9 (3.5)	99.9 (5.1)	29.0	6.8 (13.7)	8.8 (18.0)	2.0
其他	37.8 (1.9)	27.9 (1.4)	△ 9.9	1.1 (2.3)	0.8 (1.6)	△ 0.3
計	2,034.6 (100.0)	1,972.2 (100.0)	△ 62.4	49.6 (100.0)	48.9 (100.0)	△ 0.7

註: () 内 數值는 構成比임.

資料: 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의 順이었다. 한편 同年에 穀物에서의 蛋白質 摄取量中 쌀이 占하는 比重은 46.0%로서 제일 높으며 豆類는 18.0%, 보리쌀은 16.4%, 밀가루는 15.1% 그리고 薯類는 2.9%이었다(表5). 이로부터 쌀은 热量이나 蛋白質의 供給源으로서 지극히 큰 比重을 차지하는 單一作物임을 알 수 있다. 보리는 아직도 热量供給面에 있어서 쌀과 밀가루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蛋白質의 供給面에서는 쌀과 豆類 다음으로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

III. 都市 및 農村家計의 消費 支出動向

都市家口의 月平均家計費를 보면 所得의 增加와 함께 매년 增加하여 왔지만 그 增加率은 所得增加率을 下迴하고 있다. 이에 따라 可處分所得中에서 家計費의 比率, 즉 平均消費性向은 1968年에 97.7%이었으나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낮아져 1977年에는 83.0%로 9年前보다 14.7%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와 같이 消費性向이 낮아진 이유는 1968~77期間中 可處分所得은 5.0倍

增 加되어 家計費增加率 4.3倍를 上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農家の 平均消費性向은 1968年的 82.5%에서 1977年에는 70.4%로 12.1%포인트나 낮아졌는데 이는 可處分所得은 8.0倍 增加한데 반하여 家計費는 6.8倍 增加에 그쳤기 때문이다(表6). 農家の 平均消費性向은 都市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農家에서는 食品의 自給度가 높기 때문에 家計費支出이 적을 뿐 아니라 1974年부터 農家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을 上迴하는 높은所得增加率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都市家口의 エンゼル係数, 즉 家計費中 食料品이 차지하는 比重은 1968年的 42.7%에서 1975年에는 43.6%로 增加하였고, 그 후에는 약간 減少趨勢에 있으며, 1977年에는 42.1%이었다(表7).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エンゼル係数가 낮아지는 것은一般的인 傾向이나 1968~75年間에 エンゼル係数가 약간 높아진 것은 이期間中에 所得의 增加에도 불구하고 食料品價格의 上昇率이 一般物價上昇率을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8~75年間에 1975年을 100으로 한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는 37.6에서 100.0으로 2.7倍 上昇한데 반하여 食料品指數는 30.5에서 100.0으로 3.3倍나 上

表 6 都市家口 및 農家の 平均消費性向 推移

單位: 원

年 度	都 市 家 口*			農 家		
	可處分所 得	家計費	平均消費性向 %	可處分所 得	家計費	平均消費性向 %
1968	22,300	21,780	97.7	14,463	11,925	82.5
71	35,370	32,520	91.9	29,116	20,372	70.0
74	52,300	47,100	90.1	54,988	36,291	66.0
75	69,020	62,960	91.2	71,061	51,357	72.3
76	91,610	78,860	86.1	93,926	62,432	66.5
77	112,330	93,230	83.0	115,562	81,367	70.4
77/68	503.7	428.1	—	799.0	682.3	—

* 都市家口는 勤勞者家口임.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68~77.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8~77.

表 7 都農間의 엉겔係數 比較

區分	年 度	消費支出(A)	食料品費(B)	B/A
都	1968	23,190 원	9,889 원	42.7%
	71	34,982	14,340	41.0
	74	50,063	21,637	43.2
	75	65,320	28,478	43.6
市	76	81,458	34,983	42.9
	77	95,409	40,138	42.1
農	1968	11,925	5,651	47.4
	71	20,372	9,654	47.4
	74	36,291	17,578	48.4
	75	51,357	24,292	47.3
	76	62,432	28,554	45.7
	77	81,367	34,837	42.8

資料：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1968—77。
農水產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8—77。

昇하였다。 특히 1973~75년간은 食料品價格이 거의 1.5배 올라 食料品支出을 위한 都市家口의 負擔이 커지고 있다.

한편 農家에서도 이와 비슷한 現狀이 나타나고 있으며 엉겔係數가 1968년의 47.4%에서 1974년에는 48.4%로 약간 높아졌으며, 그 후에는減少趨勢에 있다. 1977年度 農家の 엉겔係數는 42.8%로서 都市家口와 비슷한 水準이다.

都農間의 戶當 食品消費支出動向을 比較하여 보면 1968~77년간에 都市家口의 消費支出額은 약 3.1倍 增加한데 반하여 農家는 5.2倍나 增加하여 農家の 消費支出이 都市보다 현저히 빠른 speed로 增加하였으나, 1977年度 農家の 消費支出額은 都市의 약 86.8%에 불과하다(表8)。

1977年度 都市家口의 경우 消費支出額中 穀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42.2%로서 1968년의 44.7%와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穀物의 支出比率은 減少할 것으로豫想되나 별로 줄지 않은 것은 同期間中 穀物의 消費量이 거의 비슷한 水準이고 穀物價格의 上昇率이 477.2%로서 全食料品價格上昇率 431.1%를 上廻하는데 주로 基因된다. 이에 반하여 農家の 경

表 8 食品群別 都農間 月平均 戶當 食品消費支出比較
單位: 원

食品群別	都		農		村	
	1968 (A)	1977 (B)	B/A	1968 (A)	1977 (B)	B/A
穀類	4,419 (44.7) ³⁾	16,931 (42.2)	283.1	4,366 (77.2)	22,829 (65.5)	422.9
畜產物	1,079 (10.9)	4,830 (12.0)	347.6	97 (1.7)	1,604 (4.6)	1,553.6
水產物 ¹⁾	1,301 (13.1)	3,382 (8.4)	160.0	201 (3.6)	1,564 (4.5)	678.1
果菜類	1,649 (16.7)	6,157 (15.4)	273.4	198 (3.5)	1,363 (3.9)	588.4
其 他 ²⁾	1,441 (14.6)	8,838 (22.0)	513.3	790 (14.0)	7,478 (21.5)	846.6
計	9,889 (100.0)	40,138 (100.0)	305.9	5,651 (100.0)	34,837 (100.0)	516.5

1) 海藻類 包含。

2) 油脂類, 雪糖類, 調味料, 加工食品, 菓子, 清涼飲料, 飲料, 飲料 및 外食費 包含。

3) () 内 數値는 構成比임。

資料：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1968—77。

農水產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8—1977。

우 穀物支出의 比重은 1968년의 77.2%에서 1977년에는 65.5%로 현저히 減少하였는데, 이는 所得의 增加에 따라 穀物以外食品의 支出額이 穀物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增加한데 基因된다. 1968~77년에 家計費中 畜產物支出額의 比重은 都市家口의 경우 10.9%에서 12.0%로 약간 增加한 반면 農家の 경우 1.7%에서 4.6%로 增加하여 畜產物支出額의 增加速度는 都市에 비하여 빠르다. 그러나 1977年度 農家の 畜產物支出額은 都市家口의 33.2%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1977年度 農家の 水產物支出額은 都市家口의 46.2%로서 상당히 낮은 水準이다.

家計費中 果菜類의 支出比重은 同期間中에 都市家口나 農家가 모두 별로 變動이 없으나 1977년에 都市家口의 家計費中 菜蔬支出比重은 15.4%로서 農家の 3.9%보다 상당히 높은 水準이다. 마지막으로 其他食品의 消費支出比重은 都市의 경우 1968년의 14.6%에서 1977년에는 22.0%로 현저히 增加하여 왔으며, 農村에서도 이와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

와 같이 農村에 있어서 穀物의 支出比重이 都市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소위 高級食品인 畜產物, 水產物 및 果菜類의 支出은 都市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보아 都農間에 食品消費패턴에도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77年度 都市勤勞者家口의 家計費中 穀物支出의 比重은 戶當月所得이 30,000원 以下인 階層에서는 57.6%나 되며 이 比率은 所得階層間に 다소 起伏은 있으나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減少하여 月所得이 400,000원 以上的 所得階層에서는 25.9%이었다. 所得이 높은 階層일수록 家計費中 穀物支出比率은 줄어드나 1人當 穀物支出의 絶對額은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增加하는 傾向이다(表9)。

한편 畜產物과 其他食品(穀類와 畜產物 除外)이 家計費에 占하는 比重은 所得階層에 따라 얼마간 起伏이 있으나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增加

表 9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階層別 食品群別 1人當
消費支出(1977)

所 得 階 層 別 ¹⁾	1人當 支 出 額				單位: 원
	穀 物	畜 產 物	其 他 食 品	食 料 品 費	
29,999 원 以 下	2,428 (57.6) ²⁾	498 (11.8)	1,293 (30.6)	4,219 (100.0)	
50,000~69,999	3,290 (50.4)	964 (14.8)	2,275 (34.8)	6,529 (100.0)	
90,000~109,999	3,630 (42.8)	1,536 (18.1)	3,317 (39.1)	8,483 (100.0)	
130,000~149,999	3,743 (39.2)	1,938 (20.3)	3,862 (40.5)	9,543 (100.0)	
170,000~189,999	3,688 (35.4)	2,263 (21.7)	4,460 (42.9)	10,411 (100.0)	
210,000~229,999	3,922 (33.4)	2,754 (23.4)	5,085 (43.2)	11,761 (100.0)	
250,000~299,999	3,817 (30.4)	3,102 (24.7)	5,629 (44.9)	12,548 (100.0)	
350,000~399,999	5,122 (35.2)	3,311 (22.7)	6,126 (42.1)	14,559 (100.0)	
400,000 원 以 上	4,108 (25.9)	4,240 (26.7)	7,539 (47.4)	15,887 (100.0)	
平 均	3,473 (49.7)	1,519 (21.7)	2,002 (28.6)	6,994 (100.0)	

1) 16個 所得階層中 9個 階層比率 抽選.

2) ()內 數值는 構成比임.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7.

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1977年度 月所得이 400,000원 以上인 所得階層의 1人當 穀物支出額은 4,108원으로 이는 月所得이 30,000원 以下인 最下階層의 1.4倍인데 반하여, 畜產物의 1人當 支出額은 4,240원으로 제일 낮은 所得層의 8.5倍나 된다. 이로부터 畜產物의 消費支出額은 穀物에 비하여 所得階層間に 현저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穀物과 畜產物을 제외한 食品의 1人當 消費支出額도 所得階層間に 상당한 差異가 있다(表9).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高級食品인 畜產物의 消費量은 所得階層間에는 물론 地域間에도 현저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食糧政策의 基本目標를 國民의 營養水準向上에 둔다면 食品消費패턴의 變化에 對處하여 食糧의 量的增加도 重要하지만 食品의 地域間, 所得階層間의 均等한 分配面까지 考慮하여 食糧政策이 樹立되어야 하리라 본다.

1977年度 主要食品別 kg當 單價(消費者年平均小賣價格)를 該當品目의 kg當 热量 또는 蛋白質含量으로 除하여 品目別 热量 및 蛋白質의 購入

表 10 品目別 1,000kcal當 热量購入費用(1977)
單位: 원

品 目 別	kg當 kcal含量 ¹⁾	kg當 價 格 ²⁾	1,000kcal當 購入費用	比 率 (%)
쌀	3,400 (211) ³⁾	332 (62)	98	100.0
보리	3,320 (294)	182 (88)	55	56.1
밀가루	3,540 (282)	133 (80)	38	38.8
콩	4,040 (323)	389 (80)	96	98.0
쇠고기	2,090 (323)	3,038 (80)	1,454	1,483.7
돼지고기	3,460 (323)	1,512 (80)	437	445.9
닭고기	1,260 (323)	908 (80)	721	735.7
계란	1,600 (323)	520 (80)	325	331.6

1) 品目別 kg當 kcal含量임. (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2) 小賣價格임. (大韓商工會議所, 「物價總覽」, 1978.)

3) ()內의 數值는 kg當 生產費 또는 1,000kcal當 生產費임. (農水產部統計官室)

表 11 品目別 蛋白質 100g當 購入費用(1977)

品 目 別	kg當 蛋白質 含 量	kg當 小賣價格*	蛋白質 100g當 購入費用	比 率
쌀	65	(211) 332	(325) 511	100.0
보리쌀	103	(294) 182	(285) 177	34.6
밀가루	86	(282) 133	(328) 155	30.3
콩	366	(323) 389	(88) 106	20.7
쇠고기	183	3,038	1,659	324.7
돼지고기	143	1,512	1,058	207.0
닭고기	207	908	439	85.9
계란	127	520	409	80.0

* 1977年度 平均小賣價格 임.

()내의 數値는 kg當 生產費 또는 100g當 生產費임. (農水產部 統計官室)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大韓商工會議所, 「物價總覽」, 1978.

費用을 比較하여 보면 〈表10〉 및 〈表11〉과 같다. 1,000kcal當 消費者的 購入費用이 제일 낮은 品目은 밀가루로서 38원이며 이는 쌀의 38.8%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보리쌀에서 1,000kcal의 摄取費用은 쌀의 56.1%에 불과하다. 그러나 消費者價格 대신 國內生產費를 適用하면 쌀의 1,000kcal當 供給費用은 62원으로 보리쌀 88원 밀가루 80원, 콩 80원 보다 低廉하다.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의 1,000kcal 購入費用은 쌀의 무려 14.8倍나 되며 돼지고기는 4.5倍 그리고 닭고기는 7.4倍나 된다.

한편 蛋白質 100g當 購入費用은 콩이 106원으로 제일 低廉하며 이는 쌀의 20.7%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쇠고기의 蛋白質 100g當 購入費用은 쌀의 3.2倍, 돼지고기는 쌀의 2.1倍나 되지만 닭고기와 계란은 쌀의 80~86%밖에 되지 않는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热量의 供給面에서는 穀物이 畜產物에 비하여 越等히 低廉하며 穀物中 쌀의 热量供給費用이 제일 低廉하다. 그러나 蛋白質의 供給面에서 볼 때 穀物中에는 콩, 畜產物中에는 닭고기와 鷄卵類가 相對的으

로 低廉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食品의 種類에 따라 热量과 蛋白質의 供給費用은 현저한 差異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資源條件下에서 國民의 營養改善을 위하여 農業生產을 여하히 調整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主要한 研究課題라 하겠다.

IV. 食品의 輸入依存度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口와 所得의 增加에 따라 高級食品인 畜產物과 經濟作物의 需要는 급격한 增加趨勢에 있다. 따라서 急增하는 食糧需要를 制限된 資源條件下에서 여하히 効率的으로 供給할 것인가는 農政의 主要當面課題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制限된 資源條件下에서 農業生產을 여하히 調整함으로써 全體食糧의 自給度를 提高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重要하다. 自給率(self-sufficiency rate)은 通常의 需要量에 대한 生產量으로 定義되며 이 概念은 個別品目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使用될 수 있으나 異質的인 여러 食品을 綜合하여 自給率을 計算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自給度는 보통 畜產物生產에 使用된 飼料에너지의 度外視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本 分析에서는 自給率이라는 概念대신 輸入依存度(Import dependency rate)의 概念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를 基準으로 하여 食品群別 및 全體食品의 輸入依存度를 計算하였다 〈表12〉. 이와 같이 計算된 食品의 輸入依存度는 國民의 食品에너지가 完製品이든 源料이든 간에 海運輸近 및 外國農產物市場 등에 依存하는 危險率을 나타내는 尺度라 볼 수 있으며 海外依存度의 評價는 食糧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의 하나가 될 수 있다.

〈表12〉의 col. 1)은 1人1日當 热量供給量으로서

表12 1977年度 主要食品群別 輸入依存度(熱量基準)

區 分 食品別	1人1日 當攝取 熱量 ¹⁾	總供給量中 導入完製品 의比率 ²⁾	導入完製品 에 依存 熱量供給量 ³⁾ (1 人1日當)	國內에서 加工된 에너지 량 ⁴⁾	國內에서 加 工된 에너지 中導入原料 의依存比率 ⁵⁾ 에 너 지 량 ⁶⁾	國內에서 加 工된 에너지 에 너 지 량 ⁷⁾	總輸入 에너지量 ⁷⁾	純國內 생에너지 량 ⁸⁾	輸入 依存率 ⁹⁾
穀類	1,768.0	kcal	%	kcal	%	kcal	kcal	kcal	%
밀가루	303.8	0	0	303.8	97.7	296.8	370.0	1,398.0	20.9
쌀	1,177.3	0	0	1,177.3	0	0	370.0	1,398.0	20.9
보리	259.0	0	0	259.0	28.3	73.2	370.0	1,398.0	20.9
其 他 穀	27.9	0	0	27.9	0	0	370.0	1,398.0	20.9
薯 薯 類	104.3			104.3		0	0	104.3	0
감자	21.7	0	0	21.7	0	0	0	0	0
고구마	82.6	0	0	82.6	0	0	0	0	0
雪糖	89.1			89.1	94.0	83.8	83.8	5.3	94.1
豆類	99.9			99.9		29.2	29.2	70.7	29.2
大豆	86.2	0	0	86.2	33.9	0	0	0	0
大小豆	7.2	0	0	7.2	0	0	0	0	0
其他豆類	6.5	0	0	6.5	0	0	0	0	0
堅果類	1.6			1.6		0	0	1.6	0
種子類	3.3			3.3		0	0	3.3	0
蔬菜類	55.8			55.8		0	0	55.8	0
果實類	21.7			21.7		0	0	21.7	0
肉類	75.6		0.9	74.7		20.2	21.1	46.9	27.9
牛肉	12.8	7	0.9	11.9	0	0	0	0	0
豚肉	36.7	0	0	36.7	32.2	11.8	11.8	11.8	0
鷄肉	5.9	0	0	5.9	32.2	1.9	1.9	1.9	0
其他肉類	0.3	0	0	0.3	32.2	0.1	0.1	0.1	0
副產物	19.9	0	0	19.9	32.2	6.4	6.4	6.4	0
雞卵類	19.7			19.7	32.2	6.3	6.3	13.4	32.0
牛乳類	13.6			13.6	32.2	4.4	4.4	9.2	32.4
魚貝類	75.0			75.0		0.4	0.4	74.6	0.5
魚貝類	67.9			67.9	0.4	0.3	0.3	0.3	0
海藻類	7.1			7.1	0.8	0.1	0.1	0.1	0
油脂類	15.4			15.4		0	0	15.4	0
植物性	83.6		54.7	28.9		4.5	59.2	24.4	70.8
動物性	34.8	17	5.9	28.9	15.6	4.5	4.5	0	0
合計	2,426.6	—	55.6	2,371.0	—	518.8	574.4	1,852.2	23.7

1) 및 2) 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3)=1)×2), 4)=1)-3), 5); 總源料供給量中導入源料의 比重.

6)=4)×5), 7)=3)+6), 8)=1)-7), 9)=7)/1)×100.

1977年度 農水產部 食品需給表에서 抽出하였다.
 col. 2)는 1人1日當 热量攝取量을 col. 3)과 col. 4)
 와 같이 直接輸入과 國內加工으로 區分하기 위
 한 係數로서 最終商品으로서의 輸入量이 總供給
 量(生産量+輸入量)에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낸
 다.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 col. 2)는 1977年度 쇠
 고기 輸入量 6千M³이 當年의 쇠고기 總供給量

83千M³ 中에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내며 쇠고기의
 1人1日當 摄取熱量 12.8kcal의 7%인 0.9kcal는
 海外에 依存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col. 3)[col. 1)
 —col. 2)]은 國內에서 加工된 에너지로서 이 中에
 는 輸入된 源料로 生產되거나 加工된 것이 있으
 며, 輸入源料로서 生產된 에너지는 海外에 依存
 하는 것이므로 col. 5)의 調整係數가 必要하다.
 col. 5)의 係數는 總源料供給量中導入源料의 比

重을 나타내는 係數이다. 예를 들면 밀가루의 경우 col. 5)의 97.7%는 1977年度 輸入依存度 중 小麥의 比重이다. 마찬가지로 畜產物의 경우 col. 5)의 係數 32.2%는 總濃厚飼料供給量 中 導入濃厚飼料의 比重을 指하였으며, 이 比率은 畜種間에 同一한 것으로 假定하였다. 畜產에 利用되는 모든 飼料를 TDN價로 換算하여 總TDN供給量中 導入飼料의 比重을 適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資料의 制約으로 本分析에서는 總濃厚飼料供給量 中 導入飼料의 比重을 指하였다. 但 쇠고기의 경우는 주로 國內產粗飼料와 自給飼料로 飼育된다는前提下에서 輸入依存度를 零으로 假定하였다. 牛肉도 導入飼料에 어느 정도 依存하므로 위의 쇠고기의 輸入依存度는 過少評價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導入飼料의 全量을 養豚이나 養鷄 등에 割當함으로써 이들의 輸入依存度는 다소 過大評價될 것이므로 畜產物의 全體 輸入依存度를 測定하는데 있어 위의 假定은 어느 정도 妥當性을 가지리라 본다.

以上의 方法에 의하여 1977年度 全食品의 輸入依存度는 23.7%로 推定되었는데, 이는 同年の 1人1日當 摄取熱量 (2,427kcal)의 23.7%에 該當하는 574.4kcal 가 輸入에 依存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輸入依存熱量을 食品群別로 살펴보면 穀物은 399.2kcal(69.5%), 雪糖類 83.8kcal(14.6%), 油脂類 59.2kcal(10.3%) 그리고 畜產物은 31.8kcal(5.5%)의順으로 推定된다. 穀物의 輸入依存熱量 399.2kcal中에는 導入小麥粉이 74.3%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다.

食品群別로 輸入依存度를 살펴보면 雪糖類는 94.1%로서 제일 높으며 다음은 油脂類로서 70.8%, 畜產物은 29.2% 그리고 薯類와 豆類를 除外한 穀類는 20.9%로 推定되었다. 薯類와 豆類를 포함시켰을 경우 穀物의 輸入依存度는 20.2

%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使用되는 1977年度 穀物의 自給度 66.3%보다 상당히 낮은 水準이다. 本分析에서 推定된 穀物의 輸入依存度가 通常의으로 사용되는 糧穀自給率보다 현저히 낮은 主原因은 本分析에서 飼料穀을 食用消費에 포함시키지 않고 畜產物의 輸入依存度 計算에 包含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表12〉의 热量 col. 1) 대신에 蛋白攝取量을 사용하여 마찬가지 方法으로 1977年度 蛋白質의 海外依存度를 計算하여 보면 20.1%로서 热量의 海外依存度 23.8%보다 약간 낮은 水準으로 推定되었다.

위와 同一한 節次에 의하여 計算한 年度別 食品의 輸入依存度는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間에 다소 起伏은 있으나 1968年的 14.8%에서 1977年的 23.7%로 增加되어 왔다. 최근 3個年(1975~77)동안에 國內에서 自給된 1人1日當 平均熱量供給量은 1,892.4kcal로서 이는 1977年的 所要熱量 2,389.0kcal의 79.2%에 該當되는 水準이다.

앞으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热量攝取量도 다소 增加되고 食品의 消費 패턴이 多樣化 되거나 高級화될 것이므로 食糧增產에 注力하지 않는 食品의 輸入依存度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表 13 年度別 1人當 热量供給量 및 輸入依存度

年 度 區 分	1人1日當 热量供給量			輸入 依存度 (B/A) %
	總供給量 (A) kcal	國內 生産量 (B) kcal	輸入依存量 (B) kcal	
1968	2,276.4	1,939.8	336.6	14.8
71	2,463.0	1,868.1	595.9	24.2
74	2,370.0	1,922.5	447.5	18.9
75	2,390.0	1,886.5	503.5	21.1
76	2,413.6	1,938.5	475.1	19.7
77	2,426.6	1,852.2	574.4	23.7

資料：農水產部, 「食品需給表」, 1977.

討가 있어야 하겠다.

V. 結 言

過去 10餘年間의 食品消費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穀物의 1人當 年間 總消費量은 約 200kg 으로 補合勢를 보인 반면, 廉產物과 經濟作物의 消費量은 급격히 增加하였다. 이期間中 穀物의 總消費量은 별로 變動이 없으나 그 構成面에 있어서는 상당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즉 穀, 밀가루 및 豆類의 消費量은 增加한 반면, 辣等財인 보리쌀, 薯類 등이 현저히 減少하였으며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 당분간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營養供給面에서 살펴보면 1人1日當 热量供給量은 1968~77年中 불과 6.6% (141kcal) 增加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热量攝取量의 增加率은 상당히 완만할 것이豫想되나, 热量攝取量中 高級食品인 動物性食品의 比重은 현저히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人口와 所得의 增加에 따라 需要가 急增하는 食品의 効率的인 增產施策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1977年度 韓國人の 食品消費水準은 先進國에 비하여 量과 質面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水準이며 現在 韓國과 國民所得이 비슷한 臺灣, 브라질 등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은 水準이므로 앞으로 農產物의 生產政策과 輸入政策 여하에 따라서 食品의 消費構造는 상당히 流動的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食品消費構造는 西歐化되겠으나, 지나친 西歐化는 우리나라의 資源條件下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資源條件과 韓國人の 食貫習 및 嗜好 등을 考慮하여 적절한 食品消費構造를 究明하고 이 食品消費 패턴을 政策的으로 誘導하는 것이 長期的으로 볼 때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檢

都農間 食品消費構造를 比較하여 보면 農家는 都市家口에 비하여 食品消費支出額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家計費中 穀物支出의 比重이 큰 반면, 高級食品인 廉產物과 水產物의 支出比重이 현저히 낮다. 食品消費構造는 地域間에는 물론所得階層間에도 현저한 差異가 있고 1977年度 1人1日當 热量供給量이 2,427kcal로서 비교적 낮은 水準이므로 營養供給이 불충분한 所得階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食糧政策은 國民의 營養改善을 위하여 食糧增產뿐만 아니라 地域間, 所得階層間의 보다 効率的인分配面을 考慮하여 樹立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 예를 들면 養豚이나 養鷄의 國內生產은 肥育牛에 비하여 國際競爭力이 있을 뿐만 아니라 營養單位當 生產費用이 월등히 低廉하므로 相對的으로 低廉한 鮑지고기와 鮎고기의 供給增加는 쇠고기에 비하여 低所得層의 營養改善에 크게 寄與하리라 본다. 다시 말하면 食品의 種類에 따라 热量과 蛋白質의 供給費用은 현저한 差異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資源條件下에서 國民의 營養水準을 向上시키고 食糧自給度를 提高하기 위하여는 農業生產을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主要한 研究課題라 하겠다.

1977年度 食品의 輸入依存度는 23.7%로 推定되며 이는 同年の 1人1日當 热量攝取量 2,427 kcal의 23.7%에 該當하는 574.4kcal가 輸入에 依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輸入依存熱量中에는 穀物이 차지하는 比重이 69.5%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으므로 食品의 輸入依存度를 줄이기 위해서는 安定的인 主穀自給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968~77年間에 1人1日當 國內自給熱量은 年度間에 다소 起伏은 있으나 減少趨勢에 있으며

최근 3개년平均 1人1日當 國內自給熱量은 1,892.4 kcal 水準이다. 앞으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1人當 摄取熱量도 조금은 增加할 것으로豫想되며 食品消費 패턴의 多樣化 内지 高級化로 食品의 輸入依存度가 더욱 커질 것이豫想되므로 食品의 海外依存度를 適正水準에 維持시키기 위해 서는 國內資源을 最大限度로 活用하여 食糧增產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Hiromitsu Kaneda, "Long Term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Japan, 1878—1964",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Vol. VIII, No.1, 1968, pp. 3—32.

2. Per Pinstrup-Anderson, "The Impact of Increasing Food Supply on Human Nutrition: Implications for Commodity Priorities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Polic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May 1976, pp. 131—142.
3.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Japan's Food Demand and 1985 Grain Import Prospects," *Foreign 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Service, Economic Report*, No. 53.
4. 農協中央會, “都市家口의 農產物購入動向分析”, 「農協調查月報」, 1978. 4.
5. 農協中央會,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農產物需要分析”, 「農協調查月報」, 1977. 10.